Gallery ED 대관
한라일보사 1층 Tel. 064)750-2543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9533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2년 1월 14일 금요일(음력 12월 12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제2공항 선거 핵심 이슈 부상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원론적 입장 피력 속
박찬식 지사후보, 17일 2공항 문제 재점화 시도
대안 제시 계획… 선거 출마희망자 토론 제안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 제2공항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대안 모색',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정상 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박찬식 대표는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문제를 재점화할 예정이다.

박대표는 이날 "제2공항은 지하수 위기, 난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현재 제주국제공항의 혼잡과 불편을 해소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또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다른 제주도지사 출마 희망자들에게 제2공항 철회 이후 대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 문제는 2015년 11월 10일 성산읍을 후보지로 결정 후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2019년 2월 당정협의에서 제주도가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을 수렴·제시하면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해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추진 '반대' 여론이 우세했으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제2공항 정상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후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은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됐다.

이같은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2공항 대안으로 '정석비행장' 활용을 제시했으나 제2공항 찬성 단체의 반발로 인해 공론화 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2공항 문제는 차기정부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한 TV방송에 출연,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대선전에 매듭을 짓겠다고 언급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말 각 정당에 제2공항 강행을 요구해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는 비난을 제주도의회로부터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당내 후보 경선에서 "제주도민 의사와 절차 문제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결론을 내기 위해 더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후 후속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성산읍이 공항입지로서 환경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지하수연구센터 조사·연구 본격화

도, 물 순환체계 조사 등에 31억원 투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총 사업비 31억원을 투자해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운영과 지하수 관련 조사·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용천수 순환체계 조사와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 함양량에 미치는 영향 등 기초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하수 관측망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방안 ▷관측자료 빅데이터화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관측자료 분석 등 체계적인 조사·연구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용천수 순환체계 조사와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는 빗물이 지하로 유입돼 지하수가 되고 용천수로 용출되기까지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주도의 물 순환 전 과정을 밝혀 지하수 함양은 물론 오염물질의 이동, 체류시간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지하수 수량, 수질관리의 기본 연구를 본격 시작한다.

또한 지하수 관측망 운영 효율화,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자료 분석, 수자원 관련 빅데이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고대로기자

제주 코로나19 13일 <17시 기준> 신규 5 누적 4863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022 한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데뷔한 김미경 시인(왼쪽)과 차수진 소설가(오른쪽)가 김건일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단단하고 부드러운 문학 위해 나아갈 것"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
시·소설 두 부문 신인 배출
김미경 시인, 차수진 소설가

"문단 큰 울림으로 우뚝하길"
새로운 출발선 축하와 격려

거리엔 차가운 눈발이 날렸지만 문학이라는 세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딘 이들을 축하하는 자리엔 따스한 기운이 번졌다. 13일 오후 2시 한라일보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2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 현장이다.

이번 신춘문예는 시, 시조, 소설 3개 부문 중 시와 소설 2개 부문에서 당선작이 나왔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소 인원만 초청해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는 '엄마 달과 물고기'로 시 부문에 당선된 김미경(58, 제주시) 시인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 '똥'으로 소설 부문에 당선된 차수진(41, 충남 천안) 소설가에게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김미경 시인은 이날 수상 소감에서 "40대 중반 삶의 고비에서 시를 만났고 함께 살았다. 무지막지하게 대들고 엄청나게 싸웠다"면서 그 와중에 태어난 '엄마 달과 물고기'에 대해 "점점 해체되고 분열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모성만큼은 생명의 본연이고 저 밑바닥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시인은 "이제 시의 집을 짓기 위해 기초를 놓을 구덩이를 판 느낌이다"라며 "앞으로 골조가 단단하고 부드러운 처마선을 가진 시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차수진 소설가는 "처음엔 글을 쓰는 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어렵고 힘들었다. 쓰다가 포기하길 반복했고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일기장에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며 한라일보 신춘문예 당선이 "이젠 다른 사람들과 글을 공유해도 된다는 허락의 뜻인가 했다"는 말로 기쁨을 전했다. "저를 뽑은 걸 후회하지 않도록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차 소설가는 "글을 쓸 수 있는 시간 등 기회를 준 남편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을 대표해 시상식에 참석한 고시홍 소설가는 당선자들에게 거듭 축하의 인사와 함께 "문학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삶이 아닌가 한다"며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어쩌면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는 데서 오는 허탈감이랄까, 또 다른 열병에 시달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욱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정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건일 한라일보 대표이사는 "한라일보 신춘문예는 지금까지 70여 명의 신인을 발굴했고 현재 한국 문단의 중견 작가로 활약하고 있다. 시대와 사회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함없이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문학이 가진 힘이고 위대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가의 길로 나서게 된 당선자 여러분께서는 문단에서 큰 울림으로 우뚝 서 줄 것을 부탁드린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고, 저희들은 한결같이 응원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